

## 정희맹이 경영한 영광의 용산구곡

이 중 목\*

### 차 례

1. 서언
2. 용산구곡의 산수와 누정
3. 용산구곡에 사는 즐거움
4. 결언을 대신하여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16세기 후반의 문인 정희맹(丁希孟)이 영광의 불갑산 기슭 용산리 고산(孤山) 기슭에 경영한 용산구곡(龍山九曲)에 대한 연구다. 정희맹은 영광의 오룡리(五龍里) 출신인데, 한양에 머물다가 1562년 고향으로 내려와 용산에 죽림정(竹林亭)을 짓고 1566년 추원당(追遠堂)과 건남헌(見南軒)을 지어 본격적인 삶의 공간으로 삼았으며 1589년 용산에 선양정(善養亭)을 지어 용산정사(龍山精舍)를 완성하였다. 이듬해 인근의 풍영정(風詠亭)에서 용계회(龍溪會)를 가졌다. 그리고 용산구곡의 삶을 <용산기(龍山記)>, <용산지(龍山誌)> 등 많은 작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용산구곡의 산수와 그곳에 둔 누정을 살폈다. 용산구곡은 불갑저수지에서 순량마을에 이르는 불갑천을 따라 설정한 것이다. 1곡에는 류호(柳壕)의 압청당(壓淸堂)과 류익겸(柳益謙)의 침류정(枕流亭), 2곡에는 연덕원(延德院), 3곡에는 박산대(朴山臺), 4곡에는 노산대(魯山臺), 5곡에는 죽림정, 추원당, 건남헌이 있었다. 특히 건남헌에서 보이는 팔경을 따로 두었는데 부곡채굴(富谷采蕨), 중야경전(中野耕田), 응봉망운(鷹峯望雲), 관동착약(寬洞斲藥), 전탄조어(前灘釣魚), 연덕수계(延德修契), 후원습물(後園拾栗), 송대방매(松臺訪梅) 등이 그것이다. 6곡은 선양정인데 이곳의 팔경은 생곡청송(生谷靑松), 입석백학(立石白鶴), 고산조매(孤山早梅), 삼각만중(三角晩鍾), 석교명월(石橋明月), 죽림청풍(竹林淸風), 용암조어(龍巖釣魚), 합탄관칭(蛤灘觀漲) 등이다. 7곡은 삼기대(三奇臺) 혹은 벽송대(碧松臺)이고 사선재(私善齋), 매헌(梅軒) 등의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이를 합하여 용산정사라 하였다. 용산정사의 팔경은택변류(宅邊柳), 이하국(籬下菊), 창외초(窓外蕉), 천저근(泉底芹), 정상동(井上桐), 헌전매(軒前梅), 원중물(園中栗), 옥후송(屋後松)이라 하였다. 연꽃을 심은 군자지(君子池)와 순채를 심은 사인담(舍人潭)도 있었다. 8곡은 용두대(龍頭臺)인데 관어대(觀魚臺), 임의대(臨漪臺), 호호대(浩浩臺), 송매대(松梅臺) 등이라 이름을 붙인 곳이 더

\* 서울대학교

있었고 풍영정(風詠亭), 수죽암(水竹庵) 등의 건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9곡은 낙모대(落帽臺)다.

정희맹은 진(晉)의 맹가(孟嘉)가 중앙절에 환온(桓溫)이 용산(龍山)에서 주연(酒宴)을 가진 고사와 송의 임포(林逋)가 고산(孤山)에서 매처학자(梅妻鶴子)를 거느리고 산 삶을 연결하여 자신의 용산구곡을 이렇게 꾸몄다. 이는 비슷한 시기 이이(李瑋)가 해주의 석담(石潭)에 은계정사(銀溪精舍)를 짓고 고산구곡(高山九曲)을 경영하여 향약(鄉約)을 실현한 고사와는 다른 전통을 연 것이다. 송 주희(朱熹)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이 아닌, 송 양만리(楊萬里)의 삼삼경(三三徑) 고사를 활용하여 구곡경(九曲徑)의 고사를 새로 만들었으며 용계회(龍溪會)를 결성하여 풍류를 즐겼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시와 문, 그림으로 다양하게 남겼다. 잊혀진 공간 용산구곡에서 새로운 풍류의 장을 연 정희맹의 이러한 삶을 조망하였다.

**핵심어** : 정희맹(丁希孟), 용산구곡(龍山九曲), 고산(孤山), 선양정(善養亭), 영광(靈光)

## 1. 서언

전남 영광이라 하면 조기로 명성을 떨친 범성포와 백제의 고찰 불갑사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잊혀진 용산구곡(龍山九曲)이라는 곳도 기억할 만하다. 용산구곡의 주인은 정희맹(丁希孟, 1536~1596)이다.<sup>1)</sup> 본관이 영광이며 평생 살다간 땅도 영광이다. 초명은 몽지(夢芝)와 몽학(夢鶴)을 썼다. 모친이 청의도사(靑衣道士)가 흰 망아지를 타고 와서 자지화(紫芝花) 한 가지를 받은 꿈을 꾸고 잉태하였는데 11개월 만에 낳은 아이의 가슴에 붉은 점이 있어 몽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5세 때 모친의 꿈에 학이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몽학으로 바꾼 것이라 하니 신이한 영웅의 탄생담이라 하겠다. 자가 호연(浩然)이고 호는 선양정(善養亭)인데 여기에 그 삶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고산(孤山), 용산거사(龍山居士), 용암거사(龍巖居士) 등의 호는 모두 그가 사랑한 땅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영광의 오룡리(五龍里) 출신인데 지금의 불갑면 안맹리 오룡마을이다. 20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회시에 합격하였지만 시험지

1) 정희맹의 삶은 宋煥箕의 <善養亭丁公墓碣銘并序>(<sup>『</sup>性潭集』 244:440)와 함께 실려 있는 年譜가 가장 자세하다. 이와 정희맹 및 관련 인물의 문집은 한국문집총간으로 간행된 판본의 권수와 면수를 밝힌다.

를 봉하는 규식을 어겼다 하여 취소되었다. 이에 고향으로 돌아와 양친을 봉양 하면서 독서에 몰두하였다. 22세에 한양으로 올라가 삼각산 무릉사(武陵寺)에서 독서한 것을 보면 연보에서 과거를 포기하였다고 한 것이 사실과 다른 듯하다. 25세 때인 1560년 성수침(成守琛)의 문하에 들었다. 그리고 이듬 해 시골로 내려오던 길에 이이(李珥)와 교분을 맺었는데 성수침과의 인연에서 연유한 것이다. 정희맹은 금란지교(金蘭之交)를 맺은 벗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비슷한 연배의 신응시(辛應時) 외에 30년 내외 차이가 나는 권필(權鞞), 강항(姜沆) 등도 보인다.<sup>2)</sup> 신응시는 함께 성수침에게 가르침을 입었거니와 백부 정기(丁琦)의 사위가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그의 집에 출입하였을 것이다. 또 강항은 영광의 유봉리(流峰里) 출신으로 불갑산에 묻혔으니 나이 차이가 크지만 동향의 벗이었다고 하겠다.

정희맹은 서울에서 그다지 오래 머문 것 같지 않다. 1562년 용산으로 내려와 죽림정(竹林亭)을 지어 잠시 기거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리고 1566년 추원당(追遠堂)과 견남헌(見南軒)을 지어 본격적인 삶의 공간으로 삼았다. 용산구곡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의 일이다. 그로부터 20년 이상 이곳에 기거하였다. 1589년 용산에 선양정을 지어 그의 용산정사(龍山精舍)를 완성하였다. 이듬해 인근의 풍영정(風詠亭)에서 용계회(龍溪會)를 가졌다.

이렇게 살던 중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57세의 고령이었지만 영광군수 남궁견(南宮淸)의 뜻을 따라 개유장(開誘將)이 되어 군사를 징발하고 민심을 무마하였다. 고경명(高敬命)이 광주에서, 김천일(金千鎰)이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그 역시 의병을 모으는 일을 적극 맡고 군량미를 관리하는 일도 하였다.

2) 정희맹의 <金蘭錄>(『善養亭集』 b004:405b)에 그와 절친했던 벗 이름이 보이는데 辛應時, 姜沆, 金友尹, 李應鍾, 權鞞, 李洪鍾, 丁璫, 辛慶晉, 金聲憲, 辛應世, 姜海, 蔡復, 辛應性, 辛應命, 柳益謙, 李現, 柳春發, 吳貴英, 丁希說, 李宏中, 金泰福, 李容中, 李克揚, 辛慶德, 李玉, 丁士德, 李克扶 등이 보인다. 權鞞은 權鞞로 된 데도 있지만 權鞞의 잘못이다. 자가 汝章, 호가 石洲라 하였고 『선양정집』 <부록>에 실려 있는 <諸賢次善養亭元韻>이 권필의 『석주집』(a75:99a)에 <用善養亭詩韻, 贈丁秀才缺>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丁缺은 정희맹의 아들로 추정된다. 송환기의 묘갈명에 정희맹의 아들은 丁鏡, 丁鍵, 丁鉞, 丁鈞 등 넷이 있었다. 강항의 <善養亭序>(『선양정집』 b004:429a)에서 장남의 字가 彥明, 차남의 자가 子長이라 하였는데 강항의 <答丁子長缺>(『睡隱集』 a073:030a)을 보면 丁缺이 丁鍵으로 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권필이 정희맹 부자와 모두 교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있던 1596년 오룡리의 옛집에서 눈을 감았고 선영이 있던 생곡에 묻혔다. 한참 뒤인 1745년 이미 허물어진 선양정 터로 이장하였고, 1747년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영광군수로 좌천되어 온 유취기(俞取基)의 발문을 받았지만 간행은 하지 못하였다. 1804년 송환기(宋煥箕)가 편차를 새로 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도 간행이 추진되었지만 역시 미완에 그쳤고 1905년이 되어서야 목활자로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인물이 살다가간 공간인 용산구곡에 대해서 그간 알려진 바가 없기에, 이 글에서 그 전모를 자세히 다루어볼까 한다.

## 2. 용산구곡의 산수와 누정

### 2.1. 용산의 산과 물

중년에 정희맹이 낙향하여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꾸민 곳은 오룡마을 북쪽 불갑천 너머 용산 기슭이다. 불갑산에서 발원한 물길이 불갑저수지에 모였다가 서쪽으로 흘러나가는데 불갑천이다. 불갑저수지 서쪽이 순용리인데 그곳에 있는 야트막한 구룡이 용산(龍山)이다. 정희맹의 <용산기(龍山記)>에 용산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마령(磨嶺)의 한 지맥이 서쪽으로 나와 용산이 되는데 어떤 이는 그 산이 용의 형상이므로 이름을 용산이라 한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산 아래 용담(龍潭)이 있어 그 실상으로 이름붙인 것이라 한다. 이 때문에 그 산의 개울과 바위가 모두 용으로 일컫는다. 산이 그다지 높고 크지 않지만 형세가 극히 기이하고 구불구불 나지막하게 감돌아 마치 용이 서리거나 구룡이 구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여 9곡이 되는데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다.

마령은 『영광읍지(靈光邑誌)』에 보이는 마재산(磨岾山)으로 지금의 태청산을 이르는 듯하다. 그 서쪽 지맥이 용산인데 구불구불 뺨은 산세가 용의 형상이라

이 이름이 붙은 것이다. 용담(龍潭)은 용산리 서쪽 순량마을 앞 동쪽과 남쪽에서 온 물길이 합쳐지는 곳을 이르는 듯하다. 정희맹의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산이 왼쪽에 있는 것은 박산(博山)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삼각산(三角山)이며 앞에 있는 것은 고산(孤山)이다. 고산은 모악산(母岳山)에서 와서 용이 날고 봉황이 춤을 추듯 생곡(生谷)으로 모여든다. 산의 남쪽에 이르면 외로운 봉우리가 솟구치고 만 길 높다란 절벽이 평야를 위태하게 내려다본다. 박산 또한 모악산에서 오는데 용산의 동쪽에 이르면 여러 봉우리가 아스라하다. 그 기슭에 큰 바위가 기둥처럼 굳게 서 있는데 높이가 10여 길 되는데 이름을 입석이라 한다. 백학이 늘 그 위에 서식한다. 삼각산은 평퍼짐하게 휘어져 있는데 탁 터져 의지할 데가 없고 그 형세가 ‘산(山)’자처럼 생기고 엮어놓은 솔과 같다. 토성이 빙 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래된 절이 있어 새벽 종소리와 저녁 풍경소리가 산에서 들려온다. 이른바 박산, 고산, 입석, 생곡, 삼각산이라 한 봉우리가 6~7리 뻗어 있다. 푸른빛을 모으고 엮은 듯 손을 모아 읊을 하며 인사를 한다. 이 모두가 이 산을 빙 두르고 있는 듯하다.

불갑산과 모악산이 동서로 뻗어 있고 그 북쪽에 불갑사가 있다. 불갑저수지 남서쪽에 생곡리가 있는데 이 집안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다. 그 서쪽이 삼각산이다. 용산의 지리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용산지(龍山誌)>에는 삼각산이 서쪽 4리에, 고산이 남쪽 2리에, 박산이 동쪽 4리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입석은 규장각에 소장된 『비변사인방안지도』에 용계서원(龍溪書院) 서쪽 물가에 보인다. 용계서원은 강항(姜沆)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 내산서원(內山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증건되었다. 불갑저수지 바로 남쪽이다. 불갑저수지는 인근에 살던 강항(姜沆)의 글에서<sup>3)</sup>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 용추(龍湫)로 추정된다. 당시는 그리 넓지 않은 소였을 것이다. 안맹리 오룡마을에 선바위라는 명칭이 남아있다. 그 동쪽 구릉이 박산인 듯하다. 그리고 고산은 모악산에서 생곡으로 뻗은 지맥이라 하고 삼각산과 박산 사이에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오미산이겠다.<sup>4)</sup> 정희맹의 글

3) 강항, <佛甲寺重修勸施文>(『수은집』 a073:053c).

4) 정희맹은 <六連歌>(『선양정집』 b004:392a)에서 “善養亭登臨 孤岨高峨峨”라 하였는데 孤岨가 고산이다. 훗날의 오미산인 듯하다.

은 다시 이 일대의 물길로 이어진다.

물이 모악산과 초협(草峽), 불덕산(佛德山) 등 여러 산의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인산(茵山)과 박산(博山) 사이에서 합류한다. 물길이 달리다 점점 넓어지는 곳이 인수(茵水)인데, 인수에서부터 구불구불, 굽실굽실 흘러, 가락지처럼 돌기도 하고 허리띠처럼 곧게 흐르기도 한다. 용산의 아홉 구비를 감싸고돈다. 물 또한 그 때문에 아홉 구비가 되는데 어떤 때는 옆으로, 어떤 때는 아래로, 어떤 때는 얇게, 어떤 때는 깊게 흐른다. 깊으면 소가 되어 빙빙 돌아 배를 띄울 수 있고 얇으면 여울이 되어 그 맑음을 움켜질 듯하다. 침류대(枕流臺), 석교(石橋)를 경유하여 용암(龍巖)에 이른다. 어기(漁磯)를 안고 용두(龍頭)에 부딪혀 합탄(蛤灘)에 이르면 고산과 생곡의 물길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꺾어져 호계담(虎溪潭)이 되어 바다입구로 들어가는데 겨우 한 순간의 일이다.

초협은 어디를 이르는지 알 수 없고 불덕산은 장성과의 경계에 있다. 이 일대에서 발원한 물길이 인산과 박산 사이에서 모악산에서 발원한 물길과 합류한다고 하였는데 인산은 녹산리의 인산마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인산과 박산 사이에 합쳐진 곳이 지금의 불갑저수지 서쪽이라 보면 될 것이다. 이 불갑천이 고산과 생곡 사이의 지천과 합류하는 곳이 합탄(蛤灘)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순양마을 앞이 되겠다. 그 사이에 침류대(枕流臺), 석교(石橋), 용암(龍巖), 어기(漁磯), 용두(龍頭) 등이 있었다. 호계담(虎溪潭)은 합탄 서쪽에 있었겠지만 지금의 위치는 알 수 없다.

## 2.2. 압청당과 침류정

용산구곡은 불갑저수지에서 순량마을에 이르는 구간에 있었다고 보면 된다. 제1곡은 생원 류호(柳壕)의 압청당(壓淸堂)이다. 압청정은 1919년 다시 세워진 건물로 녹산리 인산 마을에 있고 고흥 류씨 소유다. 정희맹은 류호의 아들 류익겸(柳益謙)과 친분이 있어 여러 차례 수창한 시가 문집에 실려 있다. 류익겸은 자가 사수(士受), 호는 침류정(枕流亭)이다.<sup>5)</sup> 정희맹은 압청당에다 다음과 같은 시를 붙였다.

1곡은 기이한 바위 물가에 펼쳐지고  
 압청당 그 너머는 물을 뱀 침류대라네.  
 진사님 풍류를 알고자 한다면  
 노란 붕어 흰 은어 줍는 것 보시게.  
 一曲奇巖傍水開 壓清堂外枕流臺  
 欲知上舍風流事 金鯉銀唇俯拾來(壓清堂)

정희맹, <용산의 산과 물은 서로 감싸 안고 있어 함께 아홉 구비를 이룬다. 내가 병들어 누워 한가하게 있으면서 장난으로 구곡가 10수를 지어 잠시 여러 벗들에게 바쳐 함께 한 번 웃고자 한다(龍山山水相抱回, 并成九曲, 余寢疾閒居, 戲作九曲歌十首, 暫呈諸友, 相與一笑)> (『善養亭文集』 b004:381c)

침류정이 류익겸의 당호인데 그 뒤편의 석벽을 침류대라 한 것이다. 정희맹은 이곳에서 류익겸과 어울려 시를 짓기도 하였다. “강물에 맑은 바람 부는 저녁, 하늘에 흰 해가 길구나. 그윽한 흥 말하지 마세, 가는 곳마다 꽃잎 날리니(水面清風晚 天心白日遲 莫道幽賞興 隨處落花飛)”라는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다.<sup>6)</sup> 침류정은 19세기 중반 중건되었다. 류익겸의 묘갈명을 지은 임헌회는 침류정의 역사도 함께 적은 바 있다.<sup>7)</sup> 침류정을 중건한 것을 기념하여 1876년 지은 기문은 이러하다.

침류정은 무령(武靈, 영광의 옛 이름)의 동남 학동(鶴洞) 가운데 있는데 침류정 류익겸 공이 세운 것이다. 정자에 이름을 붙인 뜻을 두고 어떤 이가 “내 생각에 정자 좌우에 두문동(杜門洞), 용호리(龍虎里), 무악산(毋岳山) 세 골짜기의 물이 합쳐져 한 가닥이 되어 정자를 감싸 안고 흘러가는데 정자가 그 물 위에 베고 있는 것 같아 이른 것이다.”라 하였다. 이치로 보아 그럴 듯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 상세히 밝힐 수 없다. 어찌 속세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씻는다는 뜻도 어찌 있지 않겠는가?

5) 任憲晦의 <枕流亭柳公墓碣銘>(『鼓山集』 a314:291a)에 자세한 이력이 보인다. 柳重敎의 <默隱柳公行錄>(『省齋集』 a324:379d)에는 이 집안의 후손 楸窩 柳海龜, 遯齋 柳慶運, 墨隱 柳書行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류호는 『續東文選』에 姜景紱, 安潤德에게 보낸 시 2수가 실려 있지만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6) 정희맹, <枕流臺次柳士受韻>(『선양정집』 b004:377b).

7) 임헌회, <枕流亭重建記>(『鼓山集』 a314:494a).

듣자니 공은 우뚝한 지기(志氣)가 있어 옛 역사를 읽다가 앞선 이들이 절조를 세우고 의리를 지켜 죽음을 택한 데 이르러 책을 덮고 크게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임진왜란 때 영광군은 마침 관할하는 사람이 없어 인심이 몹시 흔들렸다. 공이 아들과 조카, 동지 들을 이끌고 창의(倡義)하여 성을 지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에는 배에 처자식을 싣고 칠산(七山)의 바다로 나가 왜적을 피했는데 갑자기 왜적을 만나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처자에게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 한 번 죽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제 왜적과는 함께 살 수 없구나.”라 하고 마침내 함께 바다에 몸을 던졌다. 여섯 사람이 동시에 목숨을 함께 하였으니 지금도 그 절개를 칭하고 있다. 이 정자가 남방에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공이 칠산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공이 돌아간 후 몇 년 만에 침류정 또한 허물어져 길 가던 이들이 손으로 가리키며 탄식하게 된 지 오래다. 근래 공의 9세손 진룡(鎭龍)과 진철(鎭澈), 진기(鎭基) 그리고 10세손 대연(大淵), 중연(仲淵) 등이 종종 사람들과 만나 중건하기로 하였다. 그 옛터가 무척 황량하였기에 조금 떨어진 인산으로 옮겼는데 인산 또한 공이 평일 은거하던 곳이다. 공의 조부 영당이 그 안에 있어 후손들이 세거하였으니, 이곳 또한 옛터가 아니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임헌회는 당시 종손으로 있던 류상준(柳相浚)의 부탁으로 이 기문을 지었다. 이 정자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 글을 지은 것이지만 류익겸의 행적과 침류정의 연혁이 무척 상세하다. 원래 침류정은 학동(鶴洞)에 있었는데 두문동(杜門洞), 용호리(龍虎里), 무악산(毋岳山, 모악산) 세 곳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라 하였다. 두문동과 용호리가 어디를 이르는지 알기 어려워 학동의 현재 위치를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갑저수지 동북쪽에 학정리가 있으니 이 쪽 방향의 물가 석벽 지역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1876년 무렵 옮겨지었는데, 이 역시 사라지고 압청당만 남았다.

### 2.3. 연덕원과 박산대, 노산대

2곡은 연덕원(延德院)인데 조선 후기 사라진 역원이다. 영광 외에 담양에도 같은 이름의 역원이 있었다. 정희맹이 이곳에 붙인 시는 이렇하다.

2곡의 역원은 누각 아래가 소인데  
 소에는 사람 그림자 거울 속에 잠겨 있네.  
 맑은 근원 한 줄기가 남쪽 밭으로 흘러  
 나락을 적셔주니 들판의 흥이 무르익네.  
 二曲院樓樓下潭 潭邊人影鏡中涵  
 清源一派流南畝 灌溉禾苗野興酣(延德院)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녹사역(綠沙驛) 남쪽 15리에 연덕원이 있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 지도에 그리진 도로를 참조하면 학정리에서 서남쪽 갈록삼거리 즈음에 있었을 듯하다. 연덕원은 정희맹의 기록 이후 폐치되어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3곡은 박산대(朴山臺)인데 정희맹의 연보에는 박산 위에 있다고 하였다. 인산 마을 건너편, 불갑저수지와 내산서원 사이의 봉우리 정상이 박산대라 불렸던 것 같다. 그리고 4곡은 노산대(魯山臺)인데 연보에서 노산의 위에 있다고 하였다. 녹산리라는 곳이 이곳으로 보이고 그 북쪽에 얹은 구릉이 노산대인 듯하다. 3곡과 4곡의 노래는 이러하다.

3곡의 박산대 그 아래 여울은  
 여울 소리 쟤다 약했다 금을 타는 듯.  
 돌다리 위에 해 저물어 행인이 흩어지니  
 물결에 찬 달빛 비친 것 가장 예쁘네.  
 三曲朴山臺下灘 灘聲揚抑似琴彈  
 石橋日暮行人散 最愛波光月影寒(朴山臺)

4곡의 산 빛이 물속에 거꾸러지는 곳  
 노산대와 학담이 통해 있다네.  
 그리워라 공자께서 물가에서 탄식한 것  
 이같이 흘러가 오묘함이 끝이 없으니.  
 四曲山光倒水中 魯山臺與鶴潭通  
 緬懷尼父臨川歎 逝者如斯妙不窮(魯山臺)

3곡 박산대 아래 여울에 돌다리가 있는데 물소리와 달빛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4곡인 노산대가 학담과 통해 있다고 하였으니 학정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녹산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곳에서 정희맹은 공자가 “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멈춤이 없이(逝者如斯夫 不捨晝夜)”라 한 말을 떠올렸다.

#### 2.4. 죽림정과 견남헌

용산의 아홉 구비 중에서 5곡이 가장 중심이다. 5곡은 죽림정(竹林亭)이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불갑교 북쪽에 자연부락 용산마을이 지금도 호젓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곳은 죽총(竹叢), 칭구례(稱求禮)라고도 불렀다. 마을에 감천(甘泉), 국천(菊泉), 한천(寒泉) 등 샘이 셋 있고 용계(龍溪)라는 개울이 있어 마을 앞의 용담(龍潭)으로 흘러들었다. 정희맹은 이곳에 자신의 집을 지은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처음 내가 임술년 가을 5곡의 골짜기에 집터를 잡고 초가 세 칸을 엮어 책을 보 관하고 병을 요양하는 장소로 삼았다. 다만 너무 좁아 가족을 데리고 살 수 없었기에 이에 다시 공사를 벌여 초가 동쪽에 넓은 집을 조성하였다. 그 터는 간좌손향(乾坐巽向)으로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한다. 개울과 못이 두루 감싸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벌려 서 있다. 앞에 마당과 밭을 두고 뒤에 과수원을 두었으니 또한 넉넉함이 있다고 할 만하다. 정당(正堂)은 세 칸인데 추원당(追遠堂)이라 하였다. 증자(曾子)가 이른 “아버이 상을 당했을 때 신중하게 행하고 먼 조상에 이르기까지 제사 지내면 백성들의 덕성이 한결 돈후하게 될 것이다(慎終追遠 民德歸厚)”라는 말을 취한 것이다. 마루는 두 칸으로 견남헌(見南軒)이라 하였는데 도연명(陶淵明)의 시 “유유히 남산을 보노라(悠然見南山)”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정희맹은 1562년 5곡에다 초가삼간 죽림정을 지었는데,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1580년 수십 칸에 이르는 남동쪽을 향한 큰 집을 새로 지었다. 정침(正寢)인 추원당(追遠堂)을 두어 조상을 기리는 마음을 담았고 객청(客廳) 견남헌(見南軒)을 두어 도연명처럼 유유자적하는 뜻을 부쳤다. 정희맹은 이곳으로 가족을 이끌고 들어와 살았다. 매일 학문으로 일을 삼고 밤낮을 이어나갔다. 태극

도(太極圖)를 모사하여 곁에 붙여두고 음양(陰陽)의 이치를 탐구하였다. 정희맹은 죽림정에 다음과 같은 시를 붙였다.

5곡은 굽은 솔과 어지러운 대 사이라  
 유인이 일이 없어 한가히 오간다네.  
 이곳에 좋은 경치 없다고 하지 말라  
 여울 위에 노니는 물고기 또렷이 보이니.  
 五曲虬松亂竹間 幽人無事往來閒  
 莫言此處無佳景 灘上游魚歷歷觀(竹林亭)

죽림정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기슭에 세운 정자다. 삶의 공간이기에 특별한 경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래 맑은 물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볼 수 있다. 물론 재미삼아 보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이른 어약연비(魚躍鳶飛)의 뜻으로 물고기의 생의(生意)를 살피는 공부를 한 것이다.

그리고 도연명이 남산을 유유히 바라보던 뜻을 취한 건남헌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여덟 가지 풍경을 팔영으로 노래하였다. 부곡의 고사리 캐기(富谷采蕨), 가운데 들판의 밭갈이(中野耕田), 생곡 매봉의 구름 구경(鷹峯望雲), 관동의 약초 캐기(寬洞斲藥), 앞 여울의 물고기 낚시(前灘釣魚), 연덕원의 수계(德院修契), 뒷 동산의 밤 줍기(後園拾栗), 매송대의 매화 찾기(松臺訪梅) 등을 들었다.<sup>8)</sup> 또 <용산기>의 마지막 대목에서 “백록(白麓) 신응시(辛應時) 영공이 먼저 칠언절구를 읊조리고 다시 계당(溪堂)에서 팔경을 얻어 송경(松逕), 울림(栗林), 순담(蓴潭), 약포(藥圃), 해전(蟹箭), 어량(魚梁), 단정(短艇), 소여(小輿)라 하였다.”라 하였는데<sup>9)</sup> 이곳에서 보이는 여러 풍경을 이른 듯하다.

8) 정희맹, <南軒八景>(『선양정집』 b004:374d).

9) 신응시의 <善養亭八詠>(『白麓遺稿』 a041:393b)만 전하고 溪堂八景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희맹의 <溪堂八景>(『선양정집』 b004:376d)이 있는데 오언절구다. 이와 별도로 칠언절구도 남기고 있는데 팔영이 아닌 <題松逕>(b004:379d) 등으로 따로 실려 있다.

## 2.5. 선양정

6곡은 바로 그 곁으로 선양정이다.

제6곡은 여러 굽이보다 조금 크다. 우뚝 솟고 곧바로 끊어져 용담(龍潭)을 앞으로 당기고 있다. 바위 벼랑이 층층이 포개져 있는데 바위 기슭에 풀이 자못 우거져 있다. 그 위를 정리하고 정자 몇 칸을 지었는데 사치하지도 누추하지도 않다. 땅이 심히 맑아 절로 별천지가 된다. 경물이 벌려 있는데 솔숲이 해를 가리고 시원한 바람소리가 절로 나온다. 물과 대나무가 달빛을 받으면 그 빛이 등실 떠서 일렁거린다. 좌우에 푸른 봉우리가 그림자를 일렁이며 푸른빛을 적신다. 하늘과 구름이 서로 어려 느릿하게 오간다. 개울과 산의 빼어남을 한 번 보면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넓고도 넓다. 마치 허공에 올라 바람을 탈 듯,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어 오를 듯 하니 목은 병도 절로 낫는다. 이 때문에 편액을 선양정(善養亭)이라 하였다. 맹자가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하였지만 나는 또한 내가 나의 호연의 병을 잘 기른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뜻을 갖들인 것이 다르지만 기른다는 뜻은 한가지다.

선양정에도 팔경을 두었다. 선영이 있는 생곡의 푸른 소나무(生谷靑松), 박산의 선바위에 깃들인 흰 학(立石白鶴), 오미산으로 추정되는 고산에 이른 봄 핀 매화(孤山早梅), 삼각산에 있는 절에서 들리는 저녁 종소리(三角晚鍾), 박산의 개울에 놓인 돌다리를 비추는 달빛(石橋明月), 죽림정에 불어오는 맑은 바람(竹林淸風), 물고기 낚시를 하는 용암(龍巖釣魚), 물이 불어난 합탄 구경(蛤灘觀漲) 등이 선양정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였다. 그런데 선양정은 연보에 1589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벗 신응시(1532~1585)가 1580년 광주목사로 있을 때 이곳에 들러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sup>10)</sup> 최소한 이보다는 앞서 완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희맹이 선양정에 붙인 시는 이리하다.

6곡은 솔 정자에 대숲길이 희미한데  
 낚시 바위 이끼에 객의 자취 희미하다.  
 달밤에 배를 띄워 스님을 찾아가니

10) 신응시, <善養亭八詠> (『白麓遺稿』 a041:393b).

그 풍류 어찌 눈 그쳤다고 돌아오랴

六曲松亭竹逕微 鈞磯苔上客蹤稀

扁舟泛月尋僧轉 何甯風流雪後歸(善養亭)

정희맹은 선양정에서 유유자적하는 뜻을 이렇게 표방하였다. 진(晉) 왕휘지(王徽之)가 눈 내린 밤 벗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서 산음(山陰)에서 배를 저어 섬계(剡溪)의 그 집 앞까지 갔다가 눈이 개자 그냥 돌아왔다는 고사가 있으니, 선양정 앞의 불갑천을 섬계에 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양정에 부친 뜻은 질병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다.

내가 젊어서는 병이 없었지만 중년에 몸을 잘 돌보지 못하여 바깥의 나쁜 기운이 허한 틈을 타고 들어 중풍이 들고 습증(濕症)이 생겼으며 얼굴 또한 부증(浮症)을 앓았다. 한 몸에 세 가지 병이 있어 스스로 폐질로 여겼다. 나라 안에 용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천리를 멀다 않고 가서 물었다. 의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질병은 원기에서 생겨나는데 원기가 실하지 않은 데서 나온다고 원기가 실하면 침과 약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바깥의 나쁜 기운이 절로 사라진다고 당신은 돌아가 그 원기를 잘 기르시오. 그러나 잘 기르는 요체는 다른 술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름다운 산과 물에 머물러 쉬면서 물외(物外)에서 유유자적하는 데 달려 있소. 바깥으로 이목구비의 욕구를 절제하고 안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평정하며 여유 있게 함양하고, 화평하게 도달하게 하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추우면 가죽 옷을 입고 더우면 갈옷을 입으시오. 성명의 자연스러움을 따르고 심기를 다스려 사납게 하지 마시오.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이렇게 하며, 올해 이렇게 하고 명년에 이렇게 하여 해마다 이렇게 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여 힘을 오래 쓰게 되면 애초의 원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오”

내가 이에 시원하게 깨달아 통쾌하게 기뻐다. 물러나 용산의 남쪽 용수의 위에 집을 정하고 또 산기슭에다 몇 칸의 정자를 지어 사치하지도 누추하지도 않게 하였다.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하니 땅이 무척 맑고 별천지가 절로 이루어졌다. 인하여 편액을 선양정이라 하였다. 의원의 말대로 7~8년 하고 나니 예전 손이 뻗뻗하던 것이 이제 부드러워졌고 예전 발이 떨리던 것이 이제 안정이 되었다. 사지가 충실해 지니 마음이 편안해져 몸이 넉넉해졌다. 이 몸의 온갖 병이 얼음 녹듯 풀렸다.<sup>1)</sup>

의원은 아름다운 산수에서 원기를 기르라는 처방을 내렸다. 정희맹은 의원의 말대로 아름다운 용산에서 7~8년 살다보니 절로 병이 나왔다. 이어지는 사연이 길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사람의 사지가 뻣뻣한 것을 불인(不仁)이라 한다. ‘불인’을 ‘인’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처방이다. 공자가 ‘인자요산’이라 하였으니, 역으로 산을 좋아하면 ‘인’이 길러진다. ‘인’이 길러지면 ‘불인’이 치유되는 것이다. 자로 삼은 ‘호연’이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我善養吾浩然之氣)”에서 가져온 것이면서 이 글에서 이른 대로 “나는 나의 호연지병을 잘 요양한다(我善養吾浩然之病)”를 겸한 것이라 하겠다. 선양정의 뜻이 이러하였지만 이곳의 삶이 엄숙한 것만은 아니었다.

선양정은 어디에 있는가? 용산에 있다. 순채와 농어는 어디에 있는가? 용계에 있다. 정자의 빼어난 형상은 모두 용계와 용산에 있는데 용계와 용산의 흥취는 또한 순채와 농어에 있다. 매년 여름 장맛비가 막 그치면 순채가 벌써 소에 가득하고 농어도 소에 가득해진다. 선양옹이 동자를 이끌고 순채를 캐고 농어를 낚아 끓여 먹기도 하고 회를 쳐 먹기도 한다. 마을의 벗이나 친척을 정자로 초청하여 좌우에 늘어 앉아 고급의 일에 대해 담소를 나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서로 즐기고 흡족해한다. 이런 때 술바람이 얼굴로 불어오고 여울 소리가 귀에 가득하다. 조각구름이 비를 몰아 앞 들판을 지나간다. 또한 이 정자에서의 한 가지 기이한 일이다.

아, 사람의 일이 어긋난 것이 많고 빼어난 벗들은 모이기 어려운 법, 우리들이 더위에 지친 때 이렇게 회합을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작년에 한 번 모이고 올해 한 번 모여 해마다 서로 보이니 다행이 아니겠는가? 온 자리의 손님 중에 명망이 높은 분은 삼로(三老)와 같고 단정한 분은 탄탕옹(坦蕩翁)과 침옹(整翁)이 있고 신의가 있는 분은 한천(寒泉)과 웅정(瓮井)이 있으며 우아한 분으로는 용만(龍灣)과 유봉(流峯)이 있고 풍류가 있고, 호방한 분으로 여러 공과 같은 분이 있으니, 함께 즐길 수 있어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 이 용계와 용산이 있는 이래 겨우 있을까 말까 한 일ियो 아예 없던 일이라 하겠다. 저 난정(蘭亭)은 지난 일이고 강동(江東)도 아득하다.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가 또한 여기에 있고, 농어와 순채가 또한 여기에 있으니, 하필 산음(山陰)을 향하고 왕희지(王羲之)를 사모하라? 이 모임이 대체하지는 못하리라. 해마다 이러한 일을 기약하자고 하니 여러 군들이 좋다고

11) 정희맹, <善養亭說>〔선양정집〕 b004:403c.

하고 나 또한 그렇다고 하여 서문을 짓는다.<sup>12)</sup>

진(晉) 장한(張翰)이 동조연(東曹掾)의 벼슬을 하던 중 가을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그리워 사직하고 떠나갔다는 고사가 있다. 이 고사의 배경이 되는 강동(江東)의 오중(吳中)에 용산을 비꼴다. 자신의 풍류가 난정의 주인 왕희지를 능가한다고 이렇게 자부하였다. 다만 선양정의 모임에 함께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아쉽다.

## 2.6. 삼기대와 용산정사

7곡은 삼기대(三奇臺)다. 정희맹이 축조한 것으로 소나무와 물과 바위 세 가지가 기이하여 붙은 이름이다.<sup>13)</sup> 이곳에서 지은 시의 앞부분에서 “홀로 바위 위 소나무에 앉으니, 두 개울이 눈앞에 팔팔 흘러가네. 솔바람 소리 거문고 연주한 듯, 물소리 바위로 생황을 만들었나(獨倚巖松坐 雙溪眼下橫 松音風作瑟 水響石爲笙)라 한 바 있다.<sup>14)</sup> 그런데 <용산지>나 연보에는 삼기대 대신 벽송대(碧松臺)를 들었는데, 원래는 삼기대였지만 나중에 벽송대로 바꾼 듯하다. 여기에 붙인 시는 이러하다.

7곡은 제방 위 병혈이 텅 비었는데  
 노니는 물고기 몇 마리 그 사이로 오가는가?  
 어부의 마음은 낚시줄 너머에서 나온 것이라  
 한가하게 통발을 들고 빗속에 내려오네.  
 七曲堤頭丙穴空 游鱗多少往來通  
 漁翁意出絲綸外 閒把篷籠下雨中(三奇臺)

병혈(丙穴)은 맛난 물고기가 나온다는 산인데 여기서의 물고기가 숨은 제방

12) 정희맹, <善養亭蓴鱸會序>(『선양정집』 b004:397a).

13) 정희맹, <築三奇臺>(『선양정집』 b004:375d).

14) 정희맹, <三奇臺卽事>(『선양정집』 b004:389b).

의 구멍을 이른다. 낚시 대신 통발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삼기대 혹은 벽송대의 위치는 정희맹이 밝혀놓지 않았다. 아마도 용산 마을 서쪽 제방 위에 축조한 대로 추정된다.

7곡에는 매헌(梅軒)이라 이름붙인 건물이 있었다. 이곳에 <매헌기>를 지어 걸었다.

용산에 아홉 구비가 있는데 제7곡은 집이 호젓하고 지세가 험하며 샘물이 달고 땅이 비옥하여 반곡(盤谷)과 같다. 을축년(1565) 가을 승려 가의(可義)를 시켜 그 건물을 짓는 일을 주관하게 하여 초당 대여섯 칸을 엮었다. 겨울이면 따스하고 여름이면 시원하여 머물 만하다. 마루 아래 마당에 몇 그루 매화를 심고 그 이름을 매헌이라 하였다. 저 매화는 또한 하나의 꽃나무지만 먼저 천지 사이 생동하는 한 양기를 먼저 얻어, 찬란하게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흰 빛을 발하니 서리와 눈을 홀로 이겨낸다. 정말 평범한 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때문에 예전 후덕하거나 우아한 사람들이 이를 많이 좋아하였다. 내가 그 마루의 편액으로 삼은 것 또한 이를 취한 것이다. 이에 바람이 불고 그윽한 향이 등실 떠오며 달이 떠 성긴 그림자라 일렁이면, 누런 갖에 시골 사람 옷을 입고 마루에 기대어 앉아 시를 읊조리고 휘파람을 불었다. 세상사 시름이 사라지고 가슴 속이 시원하여 한 점 티끌이 없다. 매헌이라는 편액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기문을 짓는다.<sup>15)</sup>

<용산기>에도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몇 가지 정보가 더 있다. “서재는 사선재(私善齋)라 하고 마루는 매헌(梅軒)이라 하였으며 다시 합쳐 용산정사(龍山精舍)라 편액을 붙였다.”라 하였다. 정희맹은 용산정사에도 팔경을 설정하였다. 집 곁의 버들(宅邊柳), 울타리 아래의 국화(籬下菊), 창 너머의 파초(窓外蕉), 샘 아래의 미나리(泉底芹), 우물 위의 오동나무(井上桐), 마루 앞의 매화(軒前梅), 동산의 밤(園中栗), 집 뒤의 소나무(屋後松) 등으로 노래하였으니,<sup>16)</sup> 집 앞뒤에 버드나무, 국화, 파초, 미나리, 오동나무, 매화, 밤나무, 소나무 등이 두루

15) 정희맹, <梅軒記>(『선양정집』 b004:401d). 이 글은 변계량의 <梅軒記>(『春亭集』 a008:070c)를 읽고 이를 이용하여 지은 흔적이 발견된다.

16) 정희맹, <龍山精舍八景>(『선양정집』 b004:389c).

있었음이 확인된다.

<용산기>는 “마당에는 파란 오동과 푸른 전나무, 노란 국화, 붉은 단풍을 많이 심었는데 오직 매화만으로 마루의 이름을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품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루 아래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아래 위 두 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은 다음 군자지(君子池)라 하고 순채를 심어 사인담(舍人潭)이라 하였는데 하나는 주렴계(周濂溪)가 연꽃을 사랑한 뜻을 취한 것이요, 하나는 장사인(張舍人)이 순채를 좋아한 뜻을 취한 것이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군자지는 연지(蓮池)다. 주돈이(周敦頤)가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군자의 꽃이라 한 이래 연꽃을 심은 못은 군자지가 되었다. 그 아래 못은 순담(尊潭)인데 앞서 본 대로 장한(張翰)의 순채국과 농어회 고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용산기>에도 다시 이렇게 이어진다.

순담은 또 용담의 남쪽 30보 쯤 떨어져 있다. 찬 물이 솟아나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 늘 뗏목을 타고 순채를 캔다. 붕어와 잉어, 다른 잡어를 이 순담에다 풀어 길러 만난 음식거리로 바치게 한다. 이 때문에 양어지(養魚池)라고도 한다. 연지(蓮池)가 다시 순담 남쪽에 있는데 상중하 세 곳이다.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향기가 여러 대와 정자로 전해진다.

순담은 사인담이라고도 하지만 물고기를 키웠기에 양어지라고도 하였다. 지금은 순량리(順良里)로 표기하지만 정희맹이 이른 순담이 여기인 듯하다.

## 2.7. 용두대와 낙모대

8곡 용두대(龍頭臺)에 붙인 시를 먼저 보인다.

8곡의 대가 높아 눈이 탁 트이니  
 허공에 올라 호기에 바람을 탈 듯.  
 평평한 개울 흰 새는 아는 이 없어  
 내만 뉘시바위에서 너와 함께한다네.

八曲臺高眼正通 憑虛豪氣可乘風  
 平川白鳥無人識 我獨磯頭與爾同(龍頭臺)

그런데 <용산기>에서는 선양정에 대해 적은 후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이어진다.

용암(龍巖)이 반쯤 용담(龍潭) 물 가운데 잠겨 있는데 너덧 명이 앉아 고기를 낚을 수 있다. 그 곁에다 ‘일편어기(一片漁磯) 호연천지(浩然天地)’라 새겼다. 또 그 위에 흰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그 가운데다 ‘독좌수간(獨坐垂竿) 봉래고기(朋來叩棋)’라 새겼다. 어떤 이는 고기암(叩棋巖)이라 이른다. 그 바위 곁 용담 위에 흙을 파고 돌을 모아 축대를 올렸다. 이를 합쳐 조대(釣臺)라 하였다. 매화와 대나무와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푸른빛이 어우러져 그늘을 이루고, 해당화와 배롱나무가 마구 뒤섞여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그림과 같다. 선양정에서 솔숲 길로 벼랑을 따라 내려가면 그 아래가 바로 이 조대다. 양의 창자와 뱀의 허리처럼 구불구불 마침내 아홉 구비를 이른다.

이를 보면 용두대라 한 것이 용암 위에 쌓아올린 축대일 가능성이 있다. 한 조각 물고기를 낚는 바위에 있노라면 천지가 드넓다는 뜻의 여덟 글자와, 홀로 앉아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데 벗이 와서 바둑돌을 두드린다는 여덟 글자를 새겼다 하니, 용두대를 읊은 시와 내용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선양정의 팔경에서 든 ‘용암조어(龍巖釣魚)’도 같다. 정희맹은 용암과 용두대를 합쳐 조대(釣臺)라 불렀다. 선양정에서 솔숲 길로 벼랑을 따라 내려가면 조대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솔숲길이 언덕이 앞서 말한 벽송대일 듯하다. <용산기>는 다시 이렇게 이어진다.

조대에서 서쪽으로 한 층 올라가 소나무 아래 흙을 깎아 단을 만들어 관어대(觀魚臺)라 하였다. 여기서 서쪽으로 돌면 석벽이 가파르고 아래로 내려다보면 땅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임의대(臨瀕臺)라 하였다. 관어대와 임의대 사이는 10여 보 되는데 긴 단을 만들어 통하게 하였는데 호호대(浩浩臺)라 하였다. 곧바로 몇 층 올라가 산허리를 깎아서 생곡과 마주 보이게 하였다. 평평하게 쌓아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소나무와 매화를 심어 송매대(松梅臺)라 하였다. 송매대 동쪽이 풍영정(風詠亭)이다. 송매대 서쪽은 수죽암(水竹庵)이다. 작은 암자를 지을 만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그 터만 남겨주었다. 그 빼어난 경관이 선양정에 못하지 않다. 아래로 긴 소를 삼길 듯하고 평야를 옆으로 당긴다. 그윽하고 아스라하여 거의 더 나을 듯도 하다. 게다가 생곡은 조부의 산소가 있는 곳이다. 게다가 언덕과 나무를 우러러보며 사모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선양정 아래 조대에서 서쪽 소나무가 있는 언덕에 만든 축대가 관어대(觀魚臺)다. 물고기를 보는 것은 앞서 본 대로 물고기의 생의를 보고 격물의 공부를 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이색(李穡)이 머문 영해의 관어대가 후대 널리 알려졌거니와 조선의 문인들은 이 이름을 좋아하였다. 영해 관어대 인근에 임의대(臨漪臺)가 있어 영해팔경의 하나였던 것을 정희맹이 기억해서인지 용산의 관어대 곁에 있는 벼랑을 임의대라 하였다. 맑은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벼랑이었겠다. 호호대(浩浩臺)는 임의대와 관어대를 연결하는 통로의 기능을 하였다. 이곳에서 지은 <호호대의 노래(浩浩臺歌)>에서 “천 길 절벽 용담을 내려다보는데, 몇 자 높은 소나무가 바위 곁에 기대있네(千尋絕壁俯龍潭 數尺老松倚巖阿)”라 하고 또 “그대 보지 못했나, 긴 여름 긴 강 순채와 농어를, 삶고 회쳐서 먹는 것 누가 책하라(又不見長夏溪潭蕪與鱸 烹之膾之誰敢訶)”라 한 대로 높은 벼랑 위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순채와 농어를 먹는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었다.<sup>17)</sup>

그리고 그 위쪽 소나무와 매화가 있는 곳을 송매대(松梅臺)라 하였다. 그리고 그 동쪽에 풍영정(風詠亭), 서쪽에 수죽암(水竹庵)이 있었다. 풍영정은 정희맹이 따로 기문을 적었다.

선양정 앞 용암 위 송매대 동쪽 10여 보 떨어진 곳 바위틈에 소나무가 자라는데 그 이름을 풍영정이라 한 지 오래다. 하루는 내가 외질 김인택(金仁澤)과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흙을 깔고 돌을 쌓아 키워서 갓 쓴 이 대여섯과 어린 아이 대여섯이 앉을 수 있게 하였다. 큰 하천이 그 아래로 흘러가고 여러 봉우리가 그 너머 벌려서 있다.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가 좌우에 어른거리며 펼쳐져 있다. 풍경이 이 앞에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 마치 눈과 귀와 의논하고 마음으로 사귀는 듯하다. 봄웃이 갓 추어지고 고운 햇살이 길어지면 폭건에 명아주 지팡이로 거닌다. 여기서 조대로 내

17) 정희맹, <浩浩臺歌>〔선양정집〕 b004:392b).

려가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귀를 씻거나 갓끈을 씻으며 갓과 옷의 먼지를 털어낸다. 다시 이 정자에 올라 이곳에서 바람을 쐬고 이곳에서 시를 읊조리면 가슴속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져 한 점 티끌도 없어진다. 내가 고인을 생각할 때 공자 문하의 증점(曾點)이 실로 내 마음을 얻는다. 바람을 쐬고 시를 읊조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증점이에요, 증점이 즐거워한 것을 즐거워한 이는 공자다. 늙은이가 증점이 바람을 쐬고 시를 읊조린 대로 읊조리고 공자가 증점과 뜻을 같이하고 싶다고 탄식한 대로 탄식하게 된다. 유유히 마음에 모이는 것이 있으니 내가 능히 성현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해도 또한 될 것이다. 아 이 몸을 살펴보니, 창해일속과 같은지라, 마땅히 성현과 함께 부귀를 뜬 구름처럼 여기고 개울과 산에서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할 것이다. 끝내 이를 즐길 줄 모르는 이는 누구인가? 아, 미미하다. 주인 용암거사가 풍영정에서 쓴다.<sup>18)</sup>

이어지는 9곡은 낙모대(落帽臺)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를 붙였다.

9곡은 해마다 들국화 피어나니  
 벼를 불러 술을 들고 실컷 마신다.  
 참군이 모자 떨어뜨린 것 언젠가  
 물 위에 맑은 바람 얼굴에 불어오네.  
 九曲年年野菊開 呼朋携酒倒深盃  
 參軍落帽知何日 水上清風吹面來(落帽臺)

<용산기>에 낙모대는 “제9곡 위에 있어 산이 끊어지고 물이 감아 도는 곳이다. 매년 중양절이면 술병을 들고 올라가 이곳에서 전례대로 술을 마셨다. 예전 맹참군(孟參軍)이 술에 취해 모자를 떨어뜨린 유풍을 황홀하게 상상해볼 수 있다.”라 하였다. 진(晉)의 맹가(孟嘉)가 중양절에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龍山)의 주연(酒宴)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고사가 있다. 용산이라는 지명이 우연히 같기에 9곡을 낙모대라 한 것이다.

18) 정희맹, <風詠亭記>(『선양정집』 b004:402a).

### 3. 용산구곡에 사는 즐거움

이이(李珣)가 해주의 석담(石潭)에 은계정사(銀溪精舍)를 짓고 고산구곡(高山九曲)을 경영하면서 향약(鄉約)을 실현하려 한 것이 1578년의 일이다. 구곡을 경영한 첫 사례로 일컬어지는데, 이이와 친분이 있던 정희맹이 거의 같은 시기에 용산구곡을 경영하였다. 이이가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모델로 하여 고산구곡을 만든 것이라면, 정희맹은 그 전범을 다른 데서 찾았다.

산에 아홉 구비가 있고 물에 아홉 구비가 있고 길도 또한 아홉 구비니, 아홉 구비가 어찌 세 가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합쳐보면 스물일곱 구비가 된다. 이것이 용산과 용수의 구곡이다. 정말 주문공(朱文公, 朱熹)의 무이동(武夷洞) 산과 물의 구곡을 감히 본뜨려 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주문공의 무이도가(武夷權歌)는 멋대로 끊임없이 영탄할 수 없다. 나의 구곡은 정말 양성재(楊誠齋)의 삼삼경(三三逕)과 같다. 이 때문에 양성재의 삼삼경을 바꾸어 짧은 시 마지막에 “삼경을 처음 연 것 장경이요, 다시 삼경을 연 것은 도연명이었지. 양성재가 이에 삼삼경을 두었으니, 구경이 거듭 선양정에서 열렸네(三逕初開是蔣卿 再開三逕有淵明 誠齋庵有三三逕 九逕重開善養亭)”라고 한 것이다.

한의 장우(蔣詡)는 고향 두릉(杜陵)에 돌아와 가시나무로 문을 막고 대나무 아래 길을 세 갈래 내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오직 양중(羊仲)과 구중(求仲) 두 사람과만 노닐 고사가 있다. 이를 이어 도잠(陶潛)은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삼경이 묵었지만, 솔과 국화는 아직 남아 있네(三逕就荒 松菊猶存)”라 하였다. 그리고 송 양만리(楊萬里)가 동원(東園)에 아홉 갈래의 길을 내고 강매(江梅), 해당화(海棠花),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굴나무, 살구나무, 홍매(紅梅), 벽도(碧桃), 부용(芙蓉) 등의 화초와 수목을 심고 이를 삼삼경(三三徑)이라 했다. 정희맹은 이러한 전통을 선양정에서 구경을 둔 것이라 하였다.<sup>19)</sup>

정희맹은 용산에 구곡을 두고 구곡산(九曲山)이라 하였다. 정희맹의 욕심은

19) 위의 글에 나오는 시는 <선양정에서 조대에 이르기까지 구곡경을 만들다(自善養亭, 至鈞臺, 作九曲逕)> (『선양정집』 b004:378a)라고 제목을 붙인 작품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다시 구곡수(九曲水)를 들었다. 구곡수는 곧 용수(龍水)이고 그 아홉 구비를 지당계(池塘溪), 원정보(元定湫), 석교탄(石橋灘), 은학보(銀鶴溚), 은어탄(銀魚灘), 용담(龍潭), 어량(魚梁), 관동보(關東溚), 합탄(蛤灘)이라 하였다. 이들 아홉 곳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용산마을 앞쪽의 용담 좌우에 있는 불갑천의 여덟 구비를 이렇게 이름 붙인 듯하다. 구곡산과 구곡수를 따라 가는 길 역시 아홉이니 구곡경(九曲徑)이 된다. 위의 시에서 이른 구곡경이 이것이다. 다만 굳이 그 이름은 따로 붙이지 않고 이 셋을 합쳐 27곡이라 하였다. <용산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젊어서는 병이 없었지만 중년에 잘 다스리지 못하여 풍을 맞고 습질(濕疾)이 생겨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이미 폐질에 걸린 사람이 되어 매일 병을 요양하는 것을 일로 삼았다. 남모를 시름으로 조식(調息)하는 여가에 가끔 몸이 가볍고 편안하며 정신이 시원하게 들면 금을 연주하고 길게 시를 읊조렸다. 지팡이를 들고 홀로 나가 정자에 오르고 멀리 바라보며 대에 올랐다. 구름을 보고 동산을 거닐고 약초를 심었다. 숲속을 뒤져 고사리를 캐고 못을 찾아 연꽃을 구경하며 맑은 곳에 임하여 갓끈을 씻었다. 어떤 때는 낚시바위에서 물고기를 낚고 배를 타고 갈매기를 가까이 하였다.<sup>20)</sup> 어떤 때는 바위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침상에 누워 바람을 맞았다. 순채를 따고 밤을 주우며 국화를 구경하고 매화를 보았다. 뜻 가는 대로 하면서 유유자적하였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흥을 발하고 경치를 만나는 대로 멋이 되었다. 정치의 잘잘못을 알지 못하고 승진과 폄적도 듣지 않았다. 무시로 기거하여 오직 편안함만 맞게 여겼다. 이것이 한창려(韓昌黎, 韓愈)가 이른바 “대장부가 때를 만나지 못한 자가 하는 일이다.”라 한 것이다. 게다가 좋은 벗이 함께 이르면 술과 안주를 진설하고 서재에 함께 앉아 고금의 일에 대해 담소를 나눈다. 하늘과 땅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세물을 보낸다. 밝은 달이 하늘 가운데 이르고 맑은 바람이 물 위로 불어오면 이에 마음을 토해 글을 논하며 금(琴)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 먼지 가득한 세상 너머에서 두둥실 노닌다. 저 부귀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나 빈천이 나를 궁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 칭찬과 비방, 잘되고 못되거나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 어찌 내 흥중에 끼어들 수 있겠는가?

봄이 온 산이 비단처럼 고와지면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고운 햇살이 길어져 꽃

20) 원문에 “磯上釣魚, 舟中鴨鵝”로 되어 있는데 “磯上釣魚, 舟中狎鵝”의 잘못인 듯하다.

향기가 자욱해진다. 푸른 나무에 그늘이 짙어지고 대낮이 호젓하면 산빛이 울창하고 개울의 바람이 맑고 시원해진다. 고기 낚는 바위에 서리가 내리고 단풍 든 숲이 그림처럼 변하면 달빛이 찬 소에 일렁이고 기러기는 긴 하늘로 지나간다. 안개 낀 숲이 쓸쓸하고 개울과 산이 모습을 잃게 되면 눈이 여러 봉우리에 가득하고 얼음이 긴 개울을 채운다. 사시사철 풍경이 같지 않고 즐거움 또한 끝이 없으며 아침저녁 자태가 똑 같지 않아도 멧은 또한 한정이 없다. 센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리거나 몹시 춥거나 몹시 더운 때가 아니라면 어느 계절 어느 날이든 나가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송매대의 바위 위에 “북쪽을 등져 겨울에도 따스하고, 개울을 임하여 여름에도 서늘하다. 봄가를 풍경이 좋으니, 어느 날이든 서성이지 않을 때 없adne (負北冬猶暖 臨流夏亦涼 春秋風景好 無日不彷徨)”라고 썼다. 이는 한가하게 살면서 병을 요양함에 쓰임이 없는 공업이다.

한 폭의 산뜻한 수채화처럼 용산의 물색을 그렸다. 이렇게 정희맹은 용산에서 은자로 살고자 하였다. 그가 지향한 은자는 매화와 국화, 소나무와 대나무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 넷을 사은(四隱)이라 하고 그림으로 그렸다.

용암에는 다른 좋은 사물이 없고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만 있는데 객들이 그 앞길을 지나간다. 내가 조대(釣臺)에 있으면 반드시 죽림(竹林)에 몸을 숨기고 내가 송대(松臺)에 있으면 또 송림(松林)에 몸을 숨긴다. 매오(梅塢)에 있어 혹 매림(梅林)에 숨기도 하고 국화밭에 있어 혹 국림(菊林)에 숨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자호(自號)를 죽은(竹隱), 송은(松隱), 매은(梅隱), 국은(菊隱)이라 통칭한다. 대개 가는 곳마다 호를 바꾸는데 반드시 네 가지 식물을 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인이 초목에 있어 각기 그 성품이 가까운 바를 사랑하기에 도연명에게 국화가, 임포에게 매화가 이것이니, 제각기 마음에 있는 바로써 식물에 깃들인 것이니, 그 뜻이 은미하다. 세속에서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에 대해 그저 그 푸르고 아름다운 것만 보며 찬란하고 고운 것만 볼 뿐이다. 또한 어찌 그 오묘함이 이러한 마음과 만남에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막 한겨울 흑한이 되어 서리와 눈이 하늘에 날리거나 한여름 더위에 불 구름이 허공을 태우면, 저 울창한 소나무와 대나무가 독야청청 빼어난 것이 또한 군자의 절조요, 언 벼랑에 바위가 찢어지고 여러 꽃들이 시들며 서리가 천지에 떨어져 생물이 초췌해 지지만 오직 아름다운 매화와 국화가 추위를 이기고 홀라 피어나니 그 또한 군자의 절조다. 군자가 정말 그 절조를 지켜 빈천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고 권세 때문에 굴

하지 않는다면 정정하여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울창하여 변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정말 똑 같은 부류라 하겠다. 아, 확고하게 스스로를 붙들어 어지러운 세상 때문에 바뀌지 않으므로, “겨센 바람에 굳센 풀을 알아보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을 알게 된다(疾風知勁草 世亂識忠臣)”. 그렇다면 내가 네 가지 식물에 몸을 숨기는 것이 이를 취한 것이요, 이 또한 군자의 무리다. 마침내 글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한다.<sup>21)</sup>

엄정한 군자의 절조를 지키는 삶을 이렇게 과시했다. 물론 엄정하다 하여 풍류를 잊은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용산은 벗과의 계획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난정(蘭亭)의 모임은 왕희지(王羲之)의 기문이 없었더라면 난정은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에 그쳤을 것이요, 적벽(赤壁)의 유람은 소동파(蘇東坡)의 부(賦)가 없었더라면 적벽은 높은 산 큰 강에 그쳤을 것이다. 왕희지의 기문과 소동파의 부가 천년 이후 한 번 읊조리고 세 번 감탄하면서 난정과 적벽의 빼어난 풍광과 아름다운 경치를 상상해볼 수 있으니, 정말 땅은 사람으로 인하여 명성을 날린다는 말이 그러하다. 아, 오늘 용계의 모임은 시대와 땅이 다르지만 흥이 미친 바는 왕희지나 소동파와 한가지다. 청천(靑川) 강태초(姜太初, 姜沆)의 서(序)는 정말 <난정서(蘭亭序)>나 <적벽부(赤壁賦)>와 함께 인구에 회자되어 무궁히 전파될 것이요, 용계의 구곡은 그 가치가 세 배 높아질 것이니, 빼어난 명성은 또한 후세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초는 아마 왕희지, 소동파와 더불어 삼절(三傑)이 될 것이 분명하다.<sup>22)</sup>

정희맹은 용산에 살면서 금란지교(金蘭之交)를 맺은 벗들이 있었다. 앞서든 신응시와 침류정의 주인 류익겸, 권필, 강항 등이 그들이다. 이들과 용계에서 가진 계획이 용계회(龍溪會)다. 정희맹이 유종원(柳宗元)이 <옹주의 마퇴산 초가에 붙인 기문(邕州馬退山茅亭記)>에서 “아름다움은 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니,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난다(夫美不自美 因人而彰)”라 하면서 이른 논리를 차용하여, 강항의 글로 인해 용산이 길이 빛날 것이요, 강항이 왕희지, 소동파와 함께 삼절이 될 것이라 높였다. 여기에 이른 강항의 글은 <용계회서(龍溪會序)>다.

21) 정희맹, <四隱圖序>(『선양정집』 b004:397b).

22) 정희맹, <龍溪會跋>(『선양정집』 b004:402c).

땅은 천여 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풍광이 그와 한가지요, 사람이 천여 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상이 그와 한가지다. 천 리를 떨어져도 서로 비슷한 것이 용계와 적벽이 바로 이것이요, 천 년을 떨어져 있어도 서로 비슷한 것이 동파와 선양노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대소는 같지 않지만 동파와 선양 노인은 궁달(窮達)에서는 같지 않으니, 같지 않는데 같다고 한 것은 풍미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풍미가 같다면 대소를 나는 따지지 않겠고, 궁달을 나는 따지지 않겠다. 풍미로 말하자면 같다면 같고 높낮이로 말하자면 다른 설도 있을 수 있다. 동파가 적벽에서 편적되어 즐겼고 선양 노인은 용계에서 천연으로 즐겼다. 동파가 적벽에서 모인 것은 칠월 기망이요, 선양 노인이 용계에서 모인 것은 팔월 기망이다. 이로써 본다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은지 반드시 분간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sup>23)</sup>

임술년이 아닌 경인년(1590년), 7월 기망이 아닌 8월 기망에 용계회를 가졌지만, 강항은 소동파와 정희맹을 나란히 두어 그 풍미가 다르지 않다고 칭송한 것이다. 정희맹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사랑하였다. 자신의 삶을 전(傳)에 담고 또 찬(贊)을 붙였다.<sup>24)</sup>

거사는 평소 산과 물을 좋아하여 용산에 살면서 이를 호로 삼았다. 원근의 혈족들이 알든 모르든 모두 용산거사라 칭하지만 그 이름과 성은 묻지 않는다. 거사의 사람됨은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또한 여유로우며 조용하고 과묵하다. 악은 숨겨주고 선을 드러낸다. 병을 안고 있지만 독서를 멈추지 않고 인과 의의 근원과 예와 악의 단서는 더욱 열심히 탐구한다. 소나무 숲에 정자 하나를 짓고 병을 요양하고 학문을 강하는 것으로 일을 삼을 뿐 남들의 영화와 이익은 사모하지 않고 남들의 부귀함은 바라지 않는다. 남들이 공명을 권하면 웃고 답하지 않는다. 함께 나가 유람하자고 청하면 일을 들어 피한 적이 없고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득 마음에 맞는 바가 있으면 문득 주량에 맞추되 마시되 반드시 취하고자 한다. 취하고 나면 크게 노래하고 길게 읊조려 답답하고 화난 마음을 푼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사모하여 그 시에 차운하여 자못 그 뜻을 보인 바 있다. 만년에 힘써 눈발을 갈아 위로 세금을 바치고 아래로 제사를 근실히 모시면서 이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뿐, 늙음이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sup>25)</sup>

23) 강항, <龍溪會序>〔선양정집』 b004:430d). 이 글이 강항의 문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24) 정희맹, <龍山居士贊>〔선양정집』 b004:402d).

정희맹은 도연명을 삶의 모범으로 삼았다. 그래서 <귀거래사>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sup>25)</sup> 이 글 자체도 도연명의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모델로 하여 지은 것이다.

#### 4. 결언을 대신하여

정희맹은 이렇게 살다 1596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생곡에 있는 선영에 묻혔다. 스스로 알아주지 않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조용히 잊혀졌다. 다행이 그의 문집 초고가 집안에 전하였기에 18세기 중엽 이익형(李益馨)의 서문과 유취기(俞取基)의 발문을 받아 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1804년 송환기가 다시 원고를 교정하고 편차하여 간행하려 하였지만 이 역시 완수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05년 후손 정영두(丁永斗)가 차남 정건(丁健, 1565~1618)의 문집 『성경재집(誠敬齋集)』과 함께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그 덕에 용산구곡이 글로 살아남게 되었다.

지금 영광의 용산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정희맹이 용산을 사랑하는 글을 남겨 후세 이를 읽어줄 사람을 기다렸기에 이렇게 그의 삶을 조망해보았다. 이렇게 하여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정희맹과 그의 용산구곡이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유종원(柳宗元)이 <옹주마퇴산모정기(邕州馬退山茅亭記)>에서 “아름다움은 절로 아름답지 않고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美不自美 因人而彰)”라 한 대로 땅은 사람으로 인해 아름다워지는 법이다. 용산은 정희맹의 글로 아름다워졌지만 그 희미한 아름다움이 이 글로 좀 더 환해졌으면 한다.

25) 정희맹, <龍山居士傳>(『선양정집』 b004:403b).

26) 정희맹, <何歸去辭>(『선양정집』 b004:374a).

## 참고문헌

丁希孟, 『善養亭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姜沆, 『睡隱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辛應時, 『白麓遺稿』(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權鞿, 『石洲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宋煥箕, 『性潭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任憲晦, 『鼓山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柳重教, 『省齋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 Abstract |

## Jeong Heemaeng's Yongsan Nine Gorges

Lee, Jong-mook

This paper aims to study on Yongsan Nine Gorges of Jeong Heemaeng. And Yongsan Nine Gorges is located at Gosan, the foot of Bulgapsan, Yeonggwanggun, Cholla Province. Jeong Heemaeng(1536~1596) was born at Ohryongri in Yeonggwang, but lived in Hanyang. In 1562, he moved to his hometown and built Jukrimjeong. In 1566, he built Chuweondang and Kyenamheon, and he lived there for the rest of his life. In 1589, he built Seonyangjeong and finally completed the Yongsanjeongsa. The next year, he held the meeting of Yonggye. As a result, he was inspired by living in Yongsan Nine Gorges writing about it in many works, including Yongsangi and Yongsanji.

This paper introduces the beautiful scenery and gazebos of Yongsan Nine Gorges. Yongsan Nine Gorges extends along the Bulgapcheon, from Bulgap reservoir to Sunyang village. The first gorge has Apcheongdang of Ryu Ho and Chimryujeong of Rhu Ikyun. The second gorge has Yeondeokwon, and the third gorge has Puksandae, the fourth gorge has Namsandae, the fifth gorge has Jukrimjeong, Chuweondang, and Kyenamheon. In particular, he put in the eight beautiful scenery which was seen from Kyenamheon. The sixth gorge has Seonyangjeong, it also has eight beautiful scenery. The seventh gorge has Samgidae or Pyeksongdae, and has other buildings, that is, Saseonjae and Maeheon. In total, he called them Yongsanjeongsa, The eighth gorge has Yongdudae, together with Gwanodae etc. The ninth gorge has Nakmodae.

Jeong's Yongsan Nine Gorges was inspired by Meng Jia's and Lin Bu's unique life. Jeong composed a series of poetry and prose related to Yongsan Nine Gorges. But its characteristics is different from Lee Yi's style, who built Eungyejeongsa at Seokdam, in Haeju, Hwanghae Province and maintained Gosan Nine Gorges and helped establish Hyangyak.

Jeong opened the new horizon. Using the three-three path idiom of Yang Wanli, not the Wuyi Nine Gorges of Zhu Xi, he organized the Yonggye meeting and enjoyed a taste for arts. He left a variety of poetry, prose and paintings which reflected his unusual life. Through these works, I can appreciate the splendid life of Jeong, who captured the beauty of Yongsan Nine Gorges, considered as the unforgettable space.

Key words : Jeong Heemaeng, Yongsan Nine Gorges, Gosan, Seonyangjeong, Yeonggwang

투고일 : 2018년 7월 5일 심사기간 : 7월 30일 - 8월 14일 게재확정일 : 8월 15일